



“매일의 삶이 부활 축제처럼...”

찬미 예수님!

교회는 부활 대축일부터 50일간의 부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행복이나 기쁨은 바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함과 어둠의 원인을 알고 주님 부활의 빛으로 채워간다면 하루하루가 감사한 나날이겠지요. 그 마음들이 모여 매일을 축제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로 축복이라면 그 시간이 모여 1년 365일 매 순간이 기쁨입니다. 신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인간들이 힘든 일을 하다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매년 축제의 날을 주었으며 축제의 친구로 뮤즈와 그의 동반자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주었다고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부활하시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께서 승천의 시간을 앞두고 당신이 떠나고 나서 불안과 좌절에 빠질 제자들에게 미리 격려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먼저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시며 말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며 오히려 내가 떠남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할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의 삶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의 많은 부분을 좋으신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분이 계시고 훗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사서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그날 걱정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침반이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내일 어찌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을 믿고 가다 보면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 것이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의 삶을 확신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축제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야고보 신부 | 사천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사도 6,1-7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1베드 2,4-9
요한 14,1-12

신입 신학생 부모 피정



2023학년도 신입 신학생 부모들을 위한 피정이 4월 23일 명례성지에서 있었다. 피정 오전 일정은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담당)의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라는 주제로 강의를 있었으며, 최진우 신부는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기도로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부모들은 순례자들과 함께한 미사를 통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특별한 행동이 아닌 일상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명례성지 순례, 개인기도, 나눔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구 레지아 순교복자 성지 도보순례



교구 레지아(담당: 최태준 필립보 신부, 단장: 백광렬 도미니코)는 해마다 실시하는 ‘교구 내 순교복자 성지 도보순례’를 4월 14일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 성지인 ‘명례성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레지아 평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밀양 수산대교에서 출발하여 뚝방길을 따라 성지까지 6km에 이르는 길을 순례하였다. 1시간 30분 정도의 도보 후에 순교자 묘지가 있는 명례성지에 도착하여 성지를 순례한 후,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담당)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순례를 마무리 하였다.

제235차 혼성 꾸르실료



교구 235차 혼성 꾸르실료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꾸르실료에는 38명이 참석하였다. 235차 차수 담당 사제는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차수 회장 홍은미 안나(덕산동본당)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만남의 자리: 성경(1)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번에 신학은 ‘내 삶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면서, 그분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답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여정(旅程)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잡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길잡이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성경(聖經)”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교과서이자 안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의 책’입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간직하고 계시나요?

어떤 주교님께서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먼지가 많이 쌓인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의미)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책의 형태로 우리 곁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며, 소설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느님 자신에 관해 그리고 당신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에 관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여정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느님, 성조들과 예언자들의 입으로 당신 말씀의 진리를 전달하는 하느님 등등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다정하신 정말이지 참 다양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 선포를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구원 의지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신화적인 서술에서부터, 역사, 율법, 시, 예언, 묵시록, 복음, 편지 등등 왜 이런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었을까? 단지 시대의 문학적인 형식에 불과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까? 예를 들어 시편은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왜 시(詩)라는 장르를 사용했을까?

시편 저자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인간 자신의 감정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 당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초월성) 영원히 존재하지만(영원성)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양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험하는 하느님은 동일한 한 분이신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탈출 3,6)이시며,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나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하느님과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만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 속 말씀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성경 안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09항』 참고)

그래야 지금 여기 우리의 성경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이자,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간직하게 해주는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적힌 내용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의 한두 구절을 읽읍시다. ... 성경을 펼쳐 놓읍시다. ... 매일 성경에서 영감을 얻읍시다.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0년 1월 26일 하느님 말씀 주일 강론 中)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3

낙동강과 피난 교우촌(2)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해 안동지역을 거쳐 대구의 금호강을 흡수하고 경남에 들어와서도 세 개의 강을 만나 몸집을 불린다. 황강과 남강南江 그리고 밀양강密陽江이다. 특히 남강은 진주시를 관통하며 흐르는 서부경남의 젖줄이다.

남강은 함양군 서상면 남덕유산에서 발원한다. 그러나 함양군과 산청군을 통과할 때 이름은 경호강鏡湖江이고 남강은 진주 쪽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다. 진주 시내를 관통한 뒤 함안군 동북쪽을 서서히 돌아 낙동강 쪽으로 흘러간다. 마지막엔 함안군 대산면과 의령군 지정면 사이에서 군의 경계를 만들면서 흐른다.

이 지역 일대는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 물의 속도가 늦어진다. 함안 쪽에서 흘러드는 함안천咸安川도 이곳에서 남강으로 유입되기에 넓은 저습지가 자연스레 펼쳐진다. 낚시꾼들에게 알려진 악양루岳陽樓는 함안천과 남강의 합수지점에 세운 누각이다. 조선 철종 때 중국의 악양루를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이 일대에 피난 교우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남강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넓은 들이 시작되는 강변지역이다. 이런 들판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곳까지 계속 이어진다. 의령 쪽엔 유곡면柳谷面의 덕천德川공소와 지정면芝正面의 성당城堂公소가 있었고 함안 쪽엔 동천東川公소와 가등佳嶒公소 그리고 동박골公소가 있다.

이곳은 많은 비가 오면 남강 수위가 높아져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다. 지대가 낮기에 늘 피해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잘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토지였기에 피난 교우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악양루 인근엔 예부터 나루터가 몇몇 있었다. 쪽배를 타고 의령과 함안 쪽을 서로 건너다니는 곳이었다. 피난 교우들은 여차하면 이곳을 통해 움직일 수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역 교우촌은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었다.

지금은 1920년대 축조된 악양 제방과 백산 제방으로 홍수 피해는 사라졌다. 더구나 남강 상류에 진양호를 만들면서 다목적 댐을 건설한 뒤로 저습지와 천수답은 옥토로 바뀌었고 나루터 역시 현대식 다리로 교체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난 교우촌에도 변화가 왔다. 여러 이유로 공소를 떠나는 교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공동체 와해가 현실화되자 사라지는 곳이 생기고 큰 공동체에 흡수되기도 했다. 의령의 덕천公소와 성당리城堂里에 있던 공소는 이렇게 해서 역사에 묻힌 경우다. 1890년대 중엽까지 건재했던 공소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선교사의 기록이 없었다면 공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덕천公소는 1893년 조조 신부의 교세통계표에 나온다. 교우 31명 사규고백자(판공성사 본 사람) 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로선 큰 공소였음을 알 수 있다. 덕천 마을은 유곡면에 있다. 마을 앞 냇가에 정자나무가 많아 떡징이 마을이라 했는데 일본인들이 한문 표기한 것이 덕천德川이다. 덕천에서 북쪽 산을 넘으면 부림면富林面 신반新反이다.

성당城堂公소는 지정면에 있었다. 예부터 이곳엔 나루터가 있었고 남강을 건너면 함안 대산 땅이다. 대산 쪽 교우들과 왕래가 많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성당진城堂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앞은 강이고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천연요새 지형이기에 성당城堂이란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의 교우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황강을 따라오다 합천 내륙에 정착했던 피난 교우들이거나 낙동강 따라오던 교우들로 추측할 수 있다. 1890년대 성향을 이루던 합천의 고무정公所와 덕천公소 그리고 대산지역 공소들이 서로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다.



명례 나루에 띄우는 편지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나는 누룩 장수
낙동강을 건너고 진영 봉하 들을 지나
산 넘어 웅천으로 갑니다

누룩이 팔리면 소금을 사고
소금이 팔리면 누룩을 사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꿈을 끝니다

함께하는 빛이 있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길

눈발이 성글게 날리는 나루터
강 건너 언덕에는 아이를 업은 아내가
포구나무 아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배는 기다리는데
바람에 꺾이고 쓰러진 갈대가
강물에 흘러가는 병인년 정월

누구도 나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돈으로 유혹하지 못하는 더딘 시간 속

나는 세상의 누룩과 소금을 파는 장수입니다
빛으로 동행하던 그분을 봉행하며
물에 녹는 소금이고 싶을 뿐



명례성지는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가 출생한 곳이며 1896년 경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명례성당이 있던 곳으로 초대 주임은 우리나라 세 번째 사제인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이다. 성당 건물은 1897년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의 생가 인근, 현재의 성모동산 부지에 건립되었는데, 1928년 권영조 마르코 신부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 성당이 1936년 태풍으로 무너지면서 원형을 축소 복원하여 1938년 성모승천성당으로 봉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526호로 등록되었다.

또한 신석복 마르코는 123인의 동료와 함께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2006년 복자의 생가터가 발견되면서 그의 삶과 순교를 기리고자 하는 바람이 생겼고 2018년 5월에 '복자 신마르코 순교자 기념 성당'이 봉헌되었다. 순교자의 삶이 반영되어 소금 기둥, 소금 알갱이 등 '녹는 소금'을 테마로 설계되었으며 성당 안쪽 부활 경당에는 진영성당 공원묘지에서 이전한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고성본당 배둔공소 봉헌식

일시: 5월 13일(토) 14:00

견진성사

일시: 5월 14일(주일)

장소: 장평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청 방문 주간

일시: 5월 8일(월)~14일(주일)까지

공소회장협의회 모임

일시: 5월 11일(목) 10:30/ 장소: 교구청

청년피정

일시: 5월 13일(토)~14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5월 14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전례와 꽃예술학교 졸업 작품 전시회

전시기간: 5월 11일(목)~13일(토) 14:00까지

장소: 교구청 1층

5.18 인권 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일시: 5월 15일(월) 08:0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출발

신청: 40명(선착순)

참가비: 5천 원(경남은행 634-07-0004219, 재)마산교구)

내용: 순례(5.18민주화 기록관, 전일빌딩245, 5.18묘역), 미사봉헌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010·2759·4178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6주년 기념행사

일시: 5월 13일(토) 12:00

남북평화통일가원미사 14:00

장소: 의정부평화의성당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5월 14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5월 13일(토)~14일(주일)

6월 10일(토)~11일(주일)

4박 5일- 5월 22일(월)~26일(금)

3박 4일- 6월 3일(토)~6일(화)

8박 9일- 6월 15일(목)~23일(금)

6월 29일(목)~7월 7일(금)

40일- 10월 4일(수)~11월 12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5월 22일~24일/5월 29일~31일/6월 10일~12일/6월 18일~20일/

6월 23일~25일/7월 1일~3일/7월 7일~9일/7월 22일~24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제주자연피정(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6월 3일~5일/7월 21일~23일/8월 26일~28일

성지순례(추자도): 5월 27일~30일/6월 10일~13일/6월 17일

~20일/9월 10일~13일/9월 16일~19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한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7월 12일~14일/ 10월 2일~4일/

10월 16일~18일/ 10월 31일~11월 2일/

11월 28일~30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피정의집

대구 포교성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4차)

참가비: 25만 원(2박 3일)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zoom수업: 7월부터 1년간 수·19:30(신·구약),

목·10:00(구약)/ 수강료: 3개월 30만 원(주 1회 2시간)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낮피정

일시: 5월 15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로마 교황청립 성서

연구원 성서학 전공,

현-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본당 주임)

주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

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새 청사에서 함께 일할 주방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1명

접수: 5월 17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통

특이사항: 신체 건강한 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5월 8일(월) 19:00	중앙동성당	그리스도안의 변화	이해봉 토마스(서울대교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문의 바람		010·6608·3217	-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자도) 성지순례 모집

6.7(수)~9(금)/ 6.12(월)~14(수)/ 6.19(월)~21(수)

7.7(금)~9(주일)/ 7.17(월)~19(수)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6.15(목)~18(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익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어머니의 달 5월에

예원호 스테파노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5월은 여름을 내딛는 길목이라 설레고 발돋움하며 가슴을 부풀어 일으키는 것으로 천지가 가득한 느낌이다. 두꺼운 햇살과 대기의 상쾌함이 대자연에 실려 오며 환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의 계절에 사랑은 삶의 기쁨을, 고난은 삶의 가치를, 믿음은 삶의 빛을 낳아 준다고 누구인가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다가 바로 여름이 되어 인간적인 신망과 따스함이 한꺼번에 더위로 지치게 옮겨갈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사회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되면서부터 윤리도덕 의식이 점차 퇴색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이나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가치 기준이 상실되고 있다. 단란하던 가정이 붕괴 현상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로 인해 가정폭력이 빈번하고 가정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존속살인을 예사롭게 자행하고 있어 걱정이 대단하다. 이젠 아이들에게 사랑 심어 주고, 밥상머리 교육이 요구된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나 국가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 과거에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각오와 재기의 원천이고 사회의 힘이 되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한다. 지금은 역경에 처하게 되면 힘과 지혜를 합해 이겨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혼자서 탈출하려는 무책임한 가족들이다.

점차 개인주의를 펴나가는 가정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여 삶의 터전인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해야 하겠다.

국가는 오래전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5월을 가정의 달이며 생명의 달로 정하였다. 초월적인 순수한 포용과 정성은 모두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오는 모성애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며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며 본향인 그 으뜸으로 어머니를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친이신 성모마리아로 모시고 있다. 마리아 동정의 어머니, 영광의 어머니, 고난의 어머니가 바로 이분이다. 골고타의 길을 밟고 올라가 보혈과 땀, 눈물을 흘리시는 구세주이신 아드님의 최후마저도 낱알이 지켜보신 어머니의 심정은 비할 곳 없는 영원한 상징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정은 어머니께서 주시는 사랑과 어머니께 바치는 사랑이 아우르고 꽃피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번 더 깊이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하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CBCK 제13회 생명 주일(5월 7일) 담화(요약문)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생애 말기의 윤리적 도전과 생명의 의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13회 생명 주일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도전받는 이 시기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며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며 매 순간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을 받으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어 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에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모든 형제자매가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5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

성모님과 함께한 교정 봉사

성연중 베드로(하대동본당)

최후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오 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이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이, 나그네 되고 헐벗은 이,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고, 못 본체 외면한 자는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곧 새 계명인 이웃사랑의 실천 유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며 가장 작은 이를 당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하느님을 인간들 사이에서 찾으라 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주목할 일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 실천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겨 보아야 할 일은 사랑과 자비를 행하여 상을 받는 쪽이든, 소홀하여 벌을 받는 쪽이든, 양쪽 모두 실천 여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상벌을 가르치는 준엄한 계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야고 4,17)

지금까지 십계명을 기준 삼아 살아오면서, 무관심과 게으름 또는 용기 부족으로 이웃사랑에 소홀했다면 이 또한 고해성사 메뉴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가톨릭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자는 한발 더 나아가 ‘섬김의 영성’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인간을 섬기려고 오신 마당에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면 인간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변성하도록 희생 봉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고 말씀하시고,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일찍이 이를 간파했기에 ‘희생 없는 종교’를 일곱 가지 사회악의 하나로 꼽았나 봅니다.

저는 10년 전 진주교도소에서 담당 사제의 강의 요청으로 첫발을 들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봉사는 장소의 여건상 운신의 폭이 좁아 할 일이 많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마침 레지오(2개 브레시 디움)가 있었고, 저는 레지오 교육위원이니 자연스럽게 레지오 지도를 맡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규정상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으로 집회가 금지되고, 출입도 제한되어 1년에 40여 주 정도밖에 주 회합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용자의 잦은 이동 때문에 간부 대부분이 3년도 되기 전에 바뀌는 열악한 실정이었지만, 신앙과 사랑에 목마른 순수한 영혼들이 모여서 훈화 내용 하나도 메모해가며 공부하는 열성적인 모습에 매주 화요일이면 성모님을 모시고 달려갑니다.

출소하는 단원이나 이동하는 단원에게는 축하나 격려의 말과 함께 혹시 레지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까떼나를 매일 바쳐 연결고리를 끊지 않도록 당부하며, 은총으로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게 묵주기도를 요청합니다. 구원자 예수님도 은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오셨는데 성모님의 전구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있을까요? 한주가 다르게 밝아져가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로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에게 웃음과 희망이 번져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